

1주차	일시	4월 17일 1시 반 장소명:온라인 진행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용국2593024	O
		박예슬252073	O
		김지윤2292063	O
		장우석2571123	O
		이채현2255037	X
	진도	도서명: 아Q정전	진도페이지: 완독.
		[좌측부터 조용국,김지윤,박예슬,장우석,이채현]	

	토론 내용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질문 중에서 한두개의 답변 후 다음 회차에 할 질문 생성 예슬 : 정신승리 또는 합리화는 어리석은 것인가? 용국 : 펄 벅(대지)과의 비교, 당대 동양 문학들의 경향성 , 지운 : 비판과 조롱의 성격 중 어느 것이 강한가? 우석 : 정신승리 : 생존전략? 기만? 외부: 이 당시의 동양 문학(시 소설)을, 전세계 문학을 읽고 비교 내부: 정신승리와 합리화에 대한 평가 정신승리에 대한 토론 내용 정신승리는 회피기제의 반영이 되어 있다. 아이히만의 예시: 생각하지 않은 죄 자기방어기제의 극단 현실의 고통을 회피수단, 사회적 불만의 간접적 분출 당시 중국 민족의 비판하기 위한 작가의 수단 사회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회피,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지속을 초래: 이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조어 정신승리는 변하지 않고자 하는 합리화, 변화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회피 변화의 계기가 될만한 것은 무엇일까? 정신승리 :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정당화 바뀌지 않고자 하는 행동 ->명백하게 잘못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 혹은 생각 대한 옹호(정당화) 합리화: 넓은 범위와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 타인을 대상으로 정당화 ->대상의 옳고 그름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떠한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에 대한 옹호(정당화) 역사적으로 부정적 묘사: 정신승리(정의를 내린 이후) 식민 지배 정당화? : 정당화 : 상황 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써 합리화하려는 시도(1인칭에서의 필연) 정신 승리: 정당화보다 열화된 논리 공감과 받아들여지는 차이 다음회차에 할것: 각자가 생각하는 정신승리와 합리화에 대한 정의생각해오기
--	-------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일반매칭4팀

2주차	일시	4월 28일 1: 30 장소명: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용국2593024	O
		박예슬252073	O
		김지윤2292063	O
		장우석2571123	O
		이채현2255037	O
	진도	도서명: 아큐정전	진도페이지: 완독
	토론 내용	[좌측부터 장우석,박예슬,이채현,주지영교수님,김지윤,조용국] 토론주제 1: 아Q의 정신 승리는 현실 도피인가, 저항의 방식인가? 조용국: 아Q는 매번 모욕이나 패배를 당할 때마다 "내가 진 게 아니다"라고 합리 화함. 이는 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현실을 바꾸려 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함. 정신 승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막음. 따라서, 그저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고 생각 박예슬: 현실 도피이다. 아Q의 정신 승리를 저항의 방식이라 하기에는 저항의 결 과가 가치있다 말하기는 애매하다. 그저 발생한 현상에 자신이 이기기 혹은 지나 가기 위해 잠시 속인 것이라고 생각. 이것은 상황을 바꾼다기보다는 도망에 가깝 다. 김지윤: 현실 도피다. 아Q는 실제로 싸움에서 지고도 “내가 그를 때린 셈이지”라 고 혼잣말을 한다. 이 말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왜곡하여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의도적인 자기기만으로, 진실을 회피하고 자기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 볼수 있다. 고통스럽고 무력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상상속으로 도 피하는 것이라 볼수있음. 또한 아Q는 정신 승리에 몰입해서 현실을 바꾸려는 어떤	

		실천적 행동을 한적이 없음. 장우석: 현실 도피다. 아Q의 정신 승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국 민중을 묘사? 풍자한 것임. 루쉰은 이를 통해 민중이 그 당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자기위안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비판했음. 즉, 아Q의 정신 승리는 중국 사회의 회피적 모습의 축소판이라 볼수있음. 이채현: 현실도피다. 정신 승리는 고통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이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중국 사회가 처한 민족적 수모나 모순을 정신 승리라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마비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임. 따라서 아Q의 정신 승리는 절대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도피라고 볼수있다. 토론 주제 2:“아Q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조용국: 아Q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끊임없이 모욕당하는 존재임. 가난과 무지, 권력 없는 삶을 살아가며 조롱과 차별을 당함. 하지만 더 약한 사람에겐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임. 여자에게 손대거나, 약자에게 분풀이하는 행동은 분명한 가해자임. 루쉰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해자"라 복합적인 인간상을 보여줌. 박예슬: 가해자이다. 아Q는 단순히 사회 구조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또 다른 가해자가 됨. 억압받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에 가담함. 이는 ‘폭력의 재생산’ 구조로, 아Q는 억압당한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음. 따라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를 되풀이하는 가해자이기도 함. 김지윤: 가해자. 아Q는 신분제, 경제적 불평등, 무지한 대중문화 속에서 태어나며, 사회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라 볼수있지만.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며, 특히 여자 아이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타인을 얕잡아보는 모습을 보인다.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폭력을 끊임없이 행함. 장우석: 새로운 권력에 쉽게 순응하거나 맞추는 모습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도 느껴짐. 아Q는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 성찰이나 반성은 거의 없음. 아Q는 오히려 가해 구조에 적응하고 동화되며, 자신도 누군가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가해자라고 생각함. 이채현: 아Q라는 인물은 단순히 ‘불쌍한 희생자’나 ‘악한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함. 그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은 피해자이자, 그 억압을 재생산한 가해자임. 루쉰은 아Q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고, 자기반성과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음. 아Q를 통해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단지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무지와 체제 순응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악순환임.
--	--	--

3주차	일시	5월 12일 1: 30 장소명: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용국2593024	O
		박예슬252073	O
		김지윤2292063	O
		장우석2571123	O
		이채현2255037	O
	진도	도서명: 아큐정전	진도페이지: 완독
	토론 내용		
		[좌측부터 장우석,박예슬,이채현,주지영교수님,김지윤,조용국] 토론내용 작성 저자는 왜 주인공을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나? 에 대해 토론함. 조용국: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민중. 아Q정전은 신해혁명(1911년) 전후, 중국 사회가 근대화로 나아가려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함. 그러나 아Q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각도, 실질적인 변화도 겪지 않음. 그는 여전히 무지하고,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자기합리화에만 몰두. 즉, 정신승리로 삶을 버티는 인물은 변화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줌.아Q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감. 이것은 혁명이 민중에게 아무런 해방도 주지 않았고, 사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냉담하다는 점을 드러낸것 같음. 루쉰은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혁명’은 외형적 변화가 아닌, 민중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 생각함. 김지윤: 죽음을 통한 냉소적 결말. 아Q는 결국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 당함. 이 결말은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냉소적임. 변화의 물결이 와도, 깨어나지 못한 민중은 희생양이 될 뿐이라는 루쉰의 비판이 담겨 있음[1][2]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운명이라기보다, 깨닫지 못하는 민중이 겪게 될 집단적 운명의 상징. 루쉰은 아Q의 죽음을 통해 중국 사회의 부조리와 무감각함을 고발함. 아Q는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혁명의 혼란 속에서 이유 없이 체포되고 ‘본보기가 되기 위해’ 처형당함. 이는 당시 무지한 민중이 아무런 죄 없이도 체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풍자. 이채현: 변화는 구조가 아닌 의식에서 출발해야 함. 루쉰은 이 작품을 통해 단지 정치 체제의 변화(예: 청 왕조 몰락, 공화국 수립) 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본것. 아Q가 죽는 것은, 자각이 없는 민중은 변화의 시대에서 결국 도태될것이라는 경고. 아Q의 죽음은 한 개인의 최후이면서도, 그 시대 무지한 민	

		중 전체의 운명을 상징함. 그는 이름도 제대로 없이 태어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처형당함. 이는 당시 민중이 어떤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역사의 들러리로만 사라지는 현실을 상징화한 결말. 박예슬: 변화를 바라며 쓴만큼 영원히 변하지않는 죽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루션은 민중의 변화를 원했음. 죽음은 변화의 가능성조차 없는 현상임. 변화와 부동의 극단성을 매치시켜 더욱 변화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것 같음.죽음을 통해 독자에게 충격과 각성을 유도. 아Q의 어이없는 처형은 독자에게 불편함, 부조리, 당혹감을 남김. 아Q는 유연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멋있어질까 하며 초조해함. 이 장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정신승리로 포장하려는 자의 비극적 희극인 것 같음. 장우석: 작품 내내 아Q는 "정신 승리법"으로 현실을 회피하며 자존감을 유지함.. 하지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는 더 이상 정신 승리를 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제대로 유연도 남기지 못한다. 이 장면은 그의 자기기만이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졌음을 상징. 즉, 민중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만 할 경우, 결국엔 파국에 이른다는 경고.
--	--	--

4주차	일시	5월 26일 1: 30 장소명: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용국2593024	O
		박예슬252073	O
		김지윤2292063	O
		장우석2571123	O
		이채현2255037	O
	진도	도서명: 아큐정전	진도페이지: 완독
	토론 내용	[좌측부터 장우석,박예슬,이채현,김지윤,조용국] 토론내용 작성 조용국: 아Q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정신승리하며 자기기만하는 인물임. 광인일기의 광인도 사회의 잔혹함을 깨닫고 괴로워하지만, 아Q는 그런 깨달음조차 없이 무지하게 현실 도피함. 둘 다 사회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지만, 아Q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반복되는 희생자임을 보여줌. 박예슬: 아Q와 광인은 모두 사회 부조리의 피해자임. 하지만 아Q는 무지와 자기기만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광인은 그 잔혹함을 직시하며 정신적으로 깨어나려 함. 루쉰은 아Q를 통해 무지한 민중의 반복되는 비극을, 광인을 통해 깨어난 개인의 고통과 각성을 보여주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함. 김지윤: 아Q가 정신승리로 현실을 회피하는 건 자기 보호지만, 결국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무의미함. 광인일기 속 광인은 사회 구조의 폭력성을 인식하며 고통받지만, 아Q는 그러한 정신적 각성이 부족해서 사회 변화도 어려운 상태임. 아Q의 무지가 봉건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냄. 장우석: 아Q의 비극은 사회가 변하지 않고 민중이 정신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함. 『광인일기』 광인의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에 ‘밥 먹으러 간다’는 희망이 있지만, 아Q는 그 희망조차 갖지 못한 채 죽음으로 마무리됨. 루쉰은 아Q를 통해 현실 도피의 위험성과 변화의 절박함을 경고함. 이채현: 아Q의 무지는 단순 무지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억압적 무지’임. 광인일기 광인처럼 깨어남이 필요하지만, 아Q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 존재임. 루쉰은 아Q를 통해 사회가 민중에게 자기인식과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광인의 고통과 맞닿은 또 다른 사회적 고통을 보여줌.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조용국25930 24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동시대 다른 작품이나 현대의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다른 시선을 가진 작품과의 비교가 더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 우리 조는 첫 차시부터 지나치게 작품과 프로그램 내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하다보니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먹함이나 어색함이 존재했었다. 중간에 한 명이 새로 들어오니 그러한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다가 3차시에 본격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마지막 4차시에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아이스브레이킹과 같은 시간들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했을 만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춤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수치심, 모멸감, 한심함, 죄책감, 동정심 등의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마치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 마담 엑스의 초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외설감을 느꼈다는 부끄러움으로 초상화와 모델에게까지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던 군중과 비평가들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큐의 모습을 타인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보면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나는 아큐의 삶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읽음으로써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진을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사진에 자신의 영혼이 빼앗기고, 가뒤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셔터에 베어져 프레임 속에 박리된 세상의 찰나임이 사진의 정수임을 생각해보면, 영원히 분리되어버린 자신의 상을 두려워한 인디언들의 모습이 마냥 우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책도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책 속에 기록된 것은 그저 문자의 나열이 아닌, 불변의 단어로 고정된 작가의 번역된 의식이요, 의미의 형판이다. 마치 거푸집과 같이, 지면 위에 고정된 사상의 틀은 작가가 기고를 마친, 단어가 쓰여진 바로 그 순간의 의도와 영혼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큐정전을 읽으며, 쇠락해가는 국가와 사회를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한 노쇠해가는 지식인의 조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 희망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절규하는 전래동화식의 교훈 뒤에 숨은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혼란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풍자와 조롱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발화 방식들의 원초적인 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박예슬25207 3	독서클럽 활동을 진행하며, 평소에 읽지 않았을 아큐정전이나 광인일기를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두고 이야기하며 토론하다보니 내가 성장한듯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모두가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팀이 나의 첫 독서클럽 멤버들이라는 점에 너무나 고마웠고,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다시한번 독서클럽활동을 하고 싶어졌다.
	3	김지윤22920 63	루윈의 아큐정전이나 광인일기 같은 계몽 소설을 읽으며, 개인과 사회, 억압과 저항과 같이 다소 무거운 주제를 깊이 있게 마주했다. 단순히 작품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까지 연결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토론을 통해 각자 다른 해석과 감정을 나누면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읽는 것'에서

			‘이해하고 나누는 것’으로, 독서의 깊이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독서의 매력을 느꼈다.
	4	장우석2571123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에 대해 바라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 알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책으로 다시 토론해보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이채현2255037	한 학기간 네 번의 만남으로 아큐정전을 다루어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광인일기라는 같은 저자와 배경을 지닌 도서를 통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전 독서토론과는 다르게 새롭고 더 풍부한 토론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팀원 모두가 의견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또 다양하게 펼쳐주어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